

2012 8. 19 연중 제 20 주일

제 1 독서 : 잠언 9,1-6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제 2 독서 :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15-20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복 음 : 요한 6, 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너희는 받아먹어라!” 무엇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일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 6 장 22 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신교에서는 말씀과 믿음, 은총으로 구원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말틴루터의 신학은 독일의 신학자인 멜랑히톤의 복음주의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칼빈파에 이르러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이 하느님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번 개신교의 **오직 성서만으로** 라는 주장에 따라 요한 복음 6 장 22 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한번 살펴 봅시다.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복음에서는 최후의만찬때에 예수님 친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빵을 들어 감사와 찬미를 드리신다음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다음 “**모두 이잔을 받아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또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지금 요한 복음 6 장에서 예수님 친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수 있단 말인가 “하며 예수님을 떠나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재차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성서에서 **아멘, 아멘, 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시는것은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강조하실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 성체신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한때 중매결혼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사랑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신혼때에 신혼의 달콤함을 맛보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신혼의 맛을 사랑이 무르익은 중혼의 시절에 맛본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 청년이 어떤 여자를 짝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의 사랑을 여자에게 고백 했을 때에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그 청년은 마음이 아플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남녀가 서로가 사랑을고백하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면 그 둘은 결혼까지 도달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하기에 앞서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중재자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체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외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그분의 짝사랑에 응답하며, **하느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이미사중에 기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조 : 필립 멜랑히톤(Philipp Melanchthon·1497~1560)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 잠언의 말씀입니다. 9,1-6

1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2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3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4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5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15-20

형제 여러분, 15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16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17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19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20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